



글 최문형

그림 박서현

역사소설 제국의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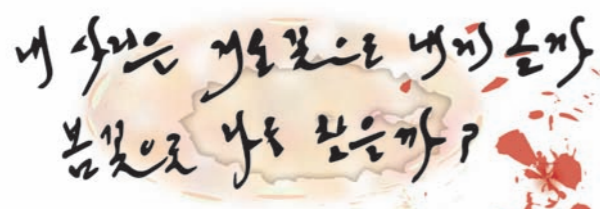
(2) 핏빛꽃 1557

내 사랑이 떠나갔다. 믿을 수 없다. 간밤에 우리는 평소처럼 다정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를 응시하는 그녀의 눈이 하도 아름다워서 순간 나는 그녀에게 입 맞출 뻔하였다. 처음 만났을 때 그녀의 눈은 깊고 향기로운 듯했다. 한동안 그녀를 외면한 것은 빨리 들어가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은 눈동자 때문이었으리라. 향원지처럼 그윽하고 수련처럼 향기를 품은 눈동자가 어쩔지 두려웠다.

이렇게 금방 그녀와 헤어질 줄 알았다면, 그랬더라면, 난 더 많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고 더 많이 그녀를 안았어야 했

까? 매사에 부지런한 그녀는 약속을 지키려고 벌써 피어났는지 모른다. 작년 갑오년 여름에도 왜놈들의 침입이 있었다. 조상께서 지어놓으신 이 곁에 화약과 총을 들고 난입했었다. 동학당들의 난을 핑계 삼아 인천에 무단으로 상륙한 놈들은 곧바로 서울로 침입했고 궁궐 주변을 시끄럽게 행군했었다.

도성 안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 떨었지. 임진년 왜란을 상기한 나의 백성들은 우마차에 살림을 싣고 피란을 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강도처럼 들어온 놈들은 급기야 나의 거처인 궐로 향했다. 7월 23일 자정에 놈들은 영추문을 부수고 들어왔지. 강도가 따로 있나? 신식총으로 무장



다. 그래, 그랬다고 치자. 이제 나는 지어미를 지키지 못한 사내가 되어 풀쭉하게 동그라져 있지 않은가! 나는 무도한 왜놈들 앞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 놈들의 칼날을 막고 그녀를 안아 지켜주지 못했다. 그때, 그녀가 떠난 세상으로 함께 갔어야 했다.

어찌 나만 숨 쉬고 있는가! 함께 거닐던 녹원에서 그녀가 불태워졌다. 달려나가 그녀의 그슬린 머리칼 한 올이라도 찾아 품에 안고 통곡하고 싶지만 내겐 그럴 자유도 없다. 그녀는 궁궐 안 사방에 가득하다. 옥호루 뜰에, 향원지 물안에, 녹원의 풀과 나무속에, 아니, 이 곁에 채 가지지 않은 연기 속에, 공기 속에 그녀가 살아 있다. 곧 녹원은 단풍으로 물들겠지. 단풍이 지쳐 낙엽이 되면 땅에 떨어져 그녀의 파편들을 만날 것이다. 내가 단풍이고 낙엽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녀는 죽으면 꽃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했다. 궁궐 안을 온통 자신의 향기로 물들이겠다고 했었다.내 사랑은 겨울 꽃으로 내게 올까, 봄꽃으로 나를 찾을

한 놈들은 왕궁수비군과 치열한 접전을 하고선 7시쯤에 우리 부부를 찾아내어 위협을 가했다. 곁에 있는 놈들의 스파이가 내가 있는 곳을 알려준 게다. 조금 지나선 웬일인지 아버지께서 곁에 도착하셨지. 놈들은 나의 명령을 강제로 취해서 우리 병사들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병기를 강탈했다. 한 달간 궁을 점령한 놈들은 무수한 나라의 보물을 실어 날랐다.

나는 그 때 죽었어야 했다. 놈들의 검박으로 군대를 해산시키고 놈들에 붙어 먹는 신하들을 궁으로 불러들이기 전에, 강도들이 나라의 보물을 실어가기 전에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다. 하지만 내게는 그녀가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와 나에겐 지켜야 할 백성이 있었다. 그 여름, 강도가 난입해 칼과 창으로 우리를 협박할 때 그녀의 눈동자가 내게 말했다.

“내 사랑, 아니에요. 지금은 안 됩니다. 당신은 살아 남으셔야 해요. 우리는 강도를 쫓아내야만 해요. 반드시! 여기서 무너지시면 아니 됩니다.”

뮤지컬 '맘마미아!' 3년 만에 랄랄라

BENNY ANDERSSON & BJÖRN ULVAEUS'



3월 개막하는 뮤지컬 '맘마미아!'에 배우 김환희, 최태이, 장현성, 김진수, 송일국 등이 새롭게 합류한다.

4일 공연 제작사 신시컴퍼니에 따르면 '맘마미아!'는 3월24일부터 6월25일까지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한다.

2020년 서울 앙코르 공연이 코로나19로 취소된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공연엔 최정원·신영숙(노나 역), 홍지민·김영주(타나 역), 박준면(로지 역), 김정민(샘 역), 이현우(해리 역) 등 기존 멤버와 김환희·최태이(소피 역), 김경선(로지 역), 장현성(샘 역), 민영기(해리 역), 김진수·송일국(빌 역) 등 오디션을 통과한 새로운 멤버들이 함께한다.

김환희·최태이·장현성·김진수·송일국 등 새롭게 합류 3월24일~6월25일까지 서울 중구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서

'맘마미아!'는 2021년 4월 공개 오디션을 진행했고, 1600명이 넘는 지원자가 몰렸다.

2004년 한국 초연부터 함께하고 있는 해외협력연출 폴 게이팅턴과 해외협력안무 리아 수 모랜드, 국내협력연출 이재은, 국내협력음악감독 김문정, 국내협력안무 황현정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오디션은 먼저 배우 개별 기량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최종 후보로 남겨진 다양한 캐릭터를 한자리에 모아

즉흥적으로 팀을 구성해 그 안에서 유인성과 팀워크, 앙상블을 심사하며 팀을 구성했다.

그 결과 김환희, 최태이, 장현성, 민영기, 김진수, 송일국, 김경선, 김시영을 비롯해 20명의 앙상블이 선발됐다.

'맘마미아!'는 엄마 '노나'와 딸 '소피'의 우정과 사랑을 세계적인 팝 그룹 아바의 음악으로 엮어 나간다.

아바의 히트곡 22곡으로 만들어졌고, 아바의 멤버인 비온 울바우스와 베니 앤 더슨이 직접 엄격하게 감수했다.

1999년 4월6일 런던 프린스 에드워드극장에서 초연한 '맘마미아!'는 올해로 24주년을 맞았다. 전 세계 450곳 도시, 50개 프로덕션에서 16개 언어로 공연됐다.

6500만 명 이상의 관객이 관람했고 40억 달러(약 5조1360억 원) 이상 티켓 판매량을 올린 히트 뮤지컬이다.

영국 웨스트엔드 역사상 다섯 번째로 통틀어 '맘마미아!'의 기록은 현재 진행 중이다.

한국에선 2004년 1월 초연해 19년간 서울을 포함한 33개 지역에서 1791회 공연하며 최단기간 200만 관객 돌파라는 기록을 세웠다. 현재는 누적 공연 2000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스카이데일리/뉴시스

뮤지컬 '마틸다', 300회 기념 1대 마틸다 커튼콜



신시컴퍼니 홈페이지 캡처.

8일까지 '미라클 위크' 진행... 전석 20% 할인 서울 대성 디큐브아트센터, 2월26일까지 공연

뮤지컬 '마틸다'가 누적 공연 300회 돌파를 앞두고 있다.

3일 제작사 신시컴퍼니에 따르면 '마틸다'는 8일에 300회(오후 2시 공연)와 301회(오후 7시 공연)를 맞는다. 2018년 9월8일 아시아 및 비영어권 최초로 한국에서 초연된 후 두 번째 시즌만이다.

이날 커튼콜에는 초연에 출연한 1대 마틸다 설가은, 안소명, 이지나, 황예영이

함께한다. 이들은 4년 만에 무대에 올라 2대 마틸다, 크린첸스쿨 학생들과 함께 특별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두 회차 커튼콜에 모두 참여한다.

또 300회를 기념해 3일부터 8일까지 '미라클 위크'가 진행된다. 한 주 동안 전석 20% 할인은 물론 2023년 마틸다 카드 캘린더를 증정한다. 8일 공연을 제외하고 커튼콜 촬영도 가능하다.

신시컴퍼니는 "'마틸다' 한국 공연은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작품이다. 블록버스터 레플리카 뮤지컬로서는 다소 낮은 인지도에 유명 배우 중심의 한국 뮤지컬 시장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여자 어린이가 주인공인 가족 뮤지컬이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미래 한국 공연계가 나아갈 힘이 될 수 있는 작품을 국내에 소개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이를 택했고 '가족 뮤지컬 저변 확대' '관객층 다변화' 등의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마틸다'는 2월26일까지 서울 구로구 대성 디큐브아트센터에서 공연한다.

Have a Good Neighbors

당신 곁엔 좋은 이웃이 있나요?

가까운 이웃부터 먼 이웃까지
 세상 모든 이웃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굿네이버스가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세상 모든 이웃에게 전하는
 따뜻한 인사말

Have a Good Neighbors

Have a Good Neighbors
 캠페인 자세히 보기 >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굿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